

부적팔기·천도재 강요·취음난동 등

뿌리 뽑는다

태고종(총무원장 윤산)이 7월부터 소속 사찰의 운영 실태를 조사해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찰과 승려를 발본색원하기로 하는 등 자정과 위상 정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난동, 도박, 폭력 등으로 승가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승려 △태고종에 재적하면서도 타종단 승려 행세를 하며 종단을 비방하는 승려 등이다. 특히 출가 5년차 미만 스님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펼친다.

태고종, 조사위 구성·특별중령도 마련

적발시 사찰등록 취소·승려자격 박탈

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달안으로 실태조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특별중령을 제정하기로 했다.

과 승려에 대해서는 이달 안으로 종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중령'을 제정해 사찰등록 취소 및 승적 제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교구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찰을 운영하거나 종단 해종자에 대해서도 강력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실태조사위원회는 부원장을 포함해 총무원 부장급 임원 4~5명과 17개 전국시도 총무원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비불교적 행위(혹세무민하는 무속, 부적판매, 천도재 강요, 짐틀하는 사찰 및 승려 △반사회적 행동(취음

조사 방법은 우선 실태조사위원회에서 사찰 소재지, 장경역사와 과정, 인근 주민 및 신도들의 해당사찰 평가 의견서 등이

포함된 조사문안을 만들어 실태조사위원회와 각 지방교구총무원 담당자들이 2~3인에 1조로 구성, 각 사찰을 방문해 직접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1차 현장 조사가 끝나면 조사된 서류를 중앙에 있는 실태조사위원회로 올려보내 실태조사위원들이 다시 모여 중령에 마련된 심사기준과 징계기준안을 토대로 재심사 후 결과를 해당사찰에 통보한다.

실태조사 이외에도 태고종은 승려교육과 출가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도 한층 강화시킬 전망이다. 우선 1년에 두 번 3일에서 1주일 동안 진행되는 기존 승려에 대한 연수 교육을 10일에서 14일로 늘릴 방침이다.

또 행사 집행 교육도 기존 1개월에서 점차 늘리기로 했으며, 향후 문제 승려가 나올시에는 그의 은사도 연대책임을 함께 묻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승적에 임직할 때 제출하는 구비서류도 기존에는 이력서만 제출했으나 앞으로는 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자기소개서도 첨부토록 할 예정이다.

부원장 자월 스님은 "그동안 태고종이 사찰과 승려들의 질적 증가보다는 양적인 증가에 치중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연말까지 이뤄질 이번 조사를 계기로 태고종이 정통종단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되면 누구라도 예외없이 중령에 의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력 입장을 밝혔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news.com

천태종, 주한 인니대사관에
지진피해 성금 1만달러 전달



천태종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6월 20일 서울 여의도 소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지난 5월 27일 발생한 지진피해 돕기 성금으로 써달라며 1만달러를 전달했다.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정산 총무원장은 6월 21일 서울 관문사에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고건 전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고 전 총리는 "늦었지만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1970년대 산림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할 때 갖나 무를 많이 심었던 구인사를 성공사례로 삼은바 있다"고 천태종과의 인연을 털어냈다.

단청장 만봉 스님 49재
7월 4일 신촌 봉원사에서

지난 5월 17일 입적한 단청장 만봉 대종사 열반 49일 기념 영산대제가 7월 4일 오전 10시 신촌 봉원사에서 봉행된다.

1부 추모 법회와 2부 영산대제로 나뉘어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펼쳐질 이번 행사에서는 법회가 진행되는 동안 만봉 스님 사리 진건 및 유작 전시회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법회준비위원장 인공스님(태고종 중앙종회 의장)은 "김구해 스님을 비롯한 봉원사 영산재보존회 소속 여산종장 스님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을 집전하도록 하는 등 의식절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총회중 호법체제·교육 강화

총회중(총무원장 남정)은 6월 19일, 최근 무속행위로 인해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일산 황룡사 사건을 계기로 총회중의 호법체제와 종교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총회중은 종교도들을 대상으로 한 감찰 기능을 강화해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경고 내지는 사찰 등록을 취소함과 동시에 연세차례에 걸친 종교 교육도 더욱 내실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새터민 정착지원 일일차집

천태종 인연 황룡사(주지 무원)는 6월 30일 인천 서구 삼곡동 제스트 플라자 7층 피카소에서 자유와 희망을 찾아 온 새터민(탈북자)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성금 마련 일일차집'을 개최한다. 이번 일일차집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열린다.

행사를 주최한 무원 스님은 "새터민들은 정부에서 주는 정착금만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생활하기가 쉽지 않다"며 "천태종은 앞으로도 새터민들의 정착지원을 위해 자선 행사를 많이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2)567-2533

김주일 기자



대원불교대학 - 호국 응봉사 결연

학생 40명 천막법당 참배
분기별 위문·정기후원 약속

조계종 균종특별교구(주지 일민)와 본사가 공동으로 '2006년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원불교대학(학장 허경구)이 과학화촌재단 호국 응봉사와 결연을 맺어 화제다.

대원불교대학 서울캠퍼스 학생 40여명은 6월 16일 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과학화촌재단 호국응봉사 건립 현장을 방문해 결연을 맺고 봉사 후원을 약속했다. 이번 결연은 대원불교대학 학생들이 지난 4월 5일자 본지 572호에 소개된 호국응봉사의 어려운 사연을 접하고 학생회에서 회의를 거쳐 결정했다.

봉사 현장에 도착한 학생들은 먼저 천막 법당을 참배하고 호국응봉사 신도회 간부 불자들이 함께 불사가 원만히 회향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과학화촌재단은 군사 장비가 첨단화되면서 최근에 창설된 부대로 군법사가 파견된 부대 가운데 유일하게 법당이 없어 24인용 천막을 치고 법회를 보고 있다. 조철호 군법사와 신도회를 중심으로 지난 1월 7일 호국 응봉사 건립을 위한 100일 기도를 시작하며 법당 신축에 들어갔으며 8월 15일 낙성을 목표로 2차 백일 기도를 봉행 중이다.

호국 응봉사는 현재 건물 신축 공사를 마치고 기와 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이며 내부 마감 공사와 외부 조경 공사를 남겨두고 있다.

대원불교대학 김범준 법사는 "천막 법당에서 기도를 하며 응봉사 건립의 서원을 세운 장병들의 마음이 많은 불자들에게 퍼져가고 있다"며 "신축 공사가 잘 마무리 되어 장병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근생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누구나 동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나

'2006 군포교 함시다' 캠페인은 '군법당-사찰-기업(학교·불교단체 포함)'을 하나로 연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군법당 후원체제를 갖춤으로써 군포교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군장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는 소중한 봉사로 추진됩니다. 종단, 사찰, 기업, 단체, 학교, 개인 등 누구나 동참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동참하나

- ▶결연 : 사찰-군법당-기업을 연결.
- ▶군법회 위문 : 소외된 군법회를 위문.
- ▶군법당 건립 후원 : 남은 군법당 재건, 신축 지원.
- ▶정기적 물품 전달 : 군법당, 군법사에 후원품 전달.
- ▶법사 지원 : 법사 없이 진행되는 군법회를 지원.
- ▶동참 및 문의 : 조계종 균종교구 (02)797-7266 /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2004-8291
- ▶후원 계좌안내 : 006-25-0023-989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477401-01-092896 (국민은행, 예금주 균종특별교구)

신설 군법당 부처님 무료로 모셔드립니다
불모 허길영씨 후원 석가모니불상(제료:불) 문의:02-2004-8291



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호국응봉사 모습.

대원불교대학은 법당 낙성식 이전에 다시한번 위문을 오기로 했고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성지순례 형식으로 위문을 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대원불교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병영 체제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결연 행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조철호 군법사는 "불사를 진행하다보니 예산보다 많은 돈이 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결연을 맺고 후원을 약속받으니 마음이 든든해진다"며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불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앞으로 법당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국군일동병원 '호국보훈사' 낙성

국군일동병원 호국 보훈사가 6월 20일 김용수 회주 자광스님을 증명법사로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함안 광명사 주지 지원 스님과 이종인 3군 사령부 군법사 및 예하 부대 군법사 30여명을 비롯해 간부, 장병 불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국군일동병원에는 원래 창고 건물을 개조해 만든 5평 남짓 법당으로 호국 관용사가 있었으나 보훈 스님이 법당 신축 기금을 보시해, 스님의 호국불교 정신을 잇고자 이번에 사명을 '호국 보훈사'로 변경했다.

한국불교호국조계종 순국선열 위령재

한국불교호국조계종(종정 혜륜)은 한국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지로 유명한 경북 칠곡 다부동 전적비 기념관 앞 흥훈담에서 6월 24일 제 25회 순국선열 및 호국선열군경 합동 위령재를 봉행했다.

종정 혜륜 스님은 "한국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숭고한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위령재를 봉행하고 있다"며 "이번 위령재를 통해 아직도 구원을 떠도는 순국선열들의 영혼들이 크락 왕생하고 나아가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두식 기자

軍佛敎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심자!

군인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젊은이들이 조국통일의 염원을 안고 헌신, 봉사하는 나라의 간성입니다.

6.25 전쟁 때 목사, 신부는 군에 종군하여 선교활동하던것에 비해 불교는 뒤늦게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8년에 최초로 5명의 군승이 임관한 이후 지금까지 37년 동안 포교활동을 하였습니다.

육해공군 397곳에 법당에서 136명의 현역 군승이 15만1천여 명의 장병들과 함께 연간 1만 6천여 회 법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200만 명이 법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연간 8만여명의 군장병에게 수계식을 거행하여 신심있고 굳건한 불자로 육성하여 부처님의 가피 속에 보람있는 근생할을 영위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종교의 지원에 비해 군승이 불법을 홍보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부족합니다.

존경하는 대덕 스님과 불자님!

저희 군불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한국불교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 군불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군불교 후원으로 한국불교의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萬人同參 후원금은

- 군장병 포교를 위한 교재, 용품, 서적
- 군장병 불자 수계식 용품(염주, 호신불 등)
- 군장병 위문, 방문, 선도활동에 필요한 위문품의 구입과
- 군승 활동을 위한 지원금품
- 군장병 신행도량(법당) 건립
- 군장병 가족 교화를 위한 교육관 건립 등에 유용하게 쓰여집니다.

軍佛敎를 후원하시려면

- 만인동참은 한사람 한사람이 한발에 일만원씩 후원하는 동참불사입니다.
- 더 많은 도움을 주신분은 설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사찰별로 연간 또는 월간 일정액을 후원할 수 있습니다.
- 신행단체나 사회단체도 연간 또는 월간으로 후원할 수 있습니다.

- ARS 한통화는 군장병에게 초코파이 한통을 보낼 수 있습니다. (ARS 060-700-0108)

- *만인동참이나 후원을 해주실 분은 균종교구로 연락주십시오.
- *후원금을 보내실 분들은 은행계좌를 이용해 주시고 보내신 후 전화 주십시오.

1인 1만원 만인동참 후원

- 제일은행 325-20-203673
- 우리는행 1005-580-051116
- 농협 094-01-156954
- 지로번호 7681972
- 조흥은행 377-01-058158
- 우체국 010025-01-010767
- 국민은행 477401-01-092896
- 예금주 : 균종특별교구

문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원광사 내
조계종 균종교구 02)797-7266 / FAX 02)796-0221 / 軍 900-7751
홈페이지 : www.gunbulkyo.org

대한불교조계종 균종 특별교구